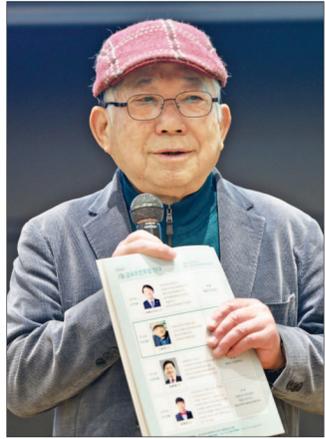


광주경중, 나태주 시인 금요조찬포럼

“경영도 결국 사람 살리는 일...좋은 지도자로 기억돼야”



나태주 시인은 지난 13일 오후 1시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중경영자총협회 제171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 강연에서 삶을 견디는 태도와 기다림의 가치를 강조했다.

마이너의 삶이 기쁨...경영자 인내·자부심 주된 행복의 원천인 기쁨 발견·삶을 견디는 지혜 강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버티는 마음입니다. 시는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사람 살리는 언어입니다. 경영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지난 13일 오후 1시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중경영자총협회 제171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 강연에서 삶을 견디는 태도와 기다림의 가치를 강조했다.
나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007년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뒤 본격적인 문학에 발을 내딛고, 공주문화원장과 한국시인협회 회장 역임, 나태주꽃문학관 설립 및 꽃문학상 제정 등 문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마이너의 삶’이라고 표현하며, 시골에서 자동차 없이 살며 시를 쓰던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 시인은 “저는 알아주는 시인이 아니었고 서울 사람도 아니었다”며 “마이너로서 끝까지 버티며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기회들이 찾아온 것 같다”고 돌아봤다.
강연에서 나 시인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명’을 꼽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이 행복과 성공, 사랑이라면서 이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자로서 인내와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나 시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은 높이 나는 새이다. 경영을 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이라며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멀리 보는 비전을 세우고 끝까지 버티 결국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룰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상 선생의 시 ‘꽃 자리’처럼 모두가 울봄 꽃이 되고, 꽃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나 시인은 시의 역할을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정의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면서 작품 속 마지막 장면을 읽다 눈물을 흘린 경험에 빗대 사람을 살리는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시의 역할과 경영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경영자로서 많은 사람을 먹여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엄청나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몇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현재의 삶을 덤으로 여긴다면 ‘하늘 아래 내가 받은/가장 커다란 선물은/오늘입니다’라는 시 ‘선물’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이라는 시간 등 모든 것이 선물이라

고 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보내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간절히 살고 싶었던 내일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나 시인은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쁨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행복의 원천이기에 가능하면 기쁨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했을 때 경험한 오아시스에서 영감을 얻은 자신의 시 ‘오아시스’를 통해 삶을 견디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상에는 강이 없어도 지하에는 강이 흐를 수 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더라도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강을 준비해 살아간다면 언젠가 삶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 시인은 마지막으로 신작 ‘생명의 길’의 일부를 통해 ‘기억이 생명이고 존재다/그것도 나의 기억보다는/타인의 기억이 더욱 그들/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노래하면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 좋은 지도자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중기부, ‘중동 리스크 현실화’ 대응 체계 손질

계약 차질 등 우려...전방위적 대응 구조 구축

중기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촉발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3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점검 회의’와 노용석 제1차관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체계 점검회의’를 각각 열어 중동 경제 장기화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 회의에서는 유가 상승과 물류 차

질, 수입 비용 증가 등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체계를 의논했다.
같은 날 차관 주재 회의에서는 중기부 본부 주요 부서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여기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이 물류 차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자 중기부는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점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과 유가 상승에 따른 비

용 부담 증가에 더해 계약 차질과 결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지역의 산업 위기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 태세를 갖춰 신속하게 지원에 나가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동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enzy@gwangnam.co.kr

광주고용청, 동신여고 해빙기 공사현장 패트롤 점검

광주 북구 학교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북구 두암동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축공사 현장에서 학교 측,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패

트롤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동절기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사고유형과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굴착 공사 구간의 지반 상태 확인과 빗물 유입 차단, 굴착면 기울기 확보, 배수로 구축 등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검토, 변형·손상 여부 점검, 계측관리 등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기아, 디플러스 기아 권재혁 선수에 ‘더 기아 PV5 WAV’ 전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PV5 WAV’ 전달식에서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철 부사장(왼쪽), 권재혁 선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TP, 위기 대응 지원 등 활력도모

광양서 중기 지원설명회...금융·수출 등 현장 상담

전남테크노파크가 기업과 상생협력 문화를 구축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 기업 경영활동 활력 도모에 힘을 보탠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광양시와 함께 ‘2026년 광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광양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안내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일자리 정책, 금융지원, 수출지원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

한 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소개됐다.
또 설명회장 뒤편에는 기관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행사에는 △전남테크노파크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주요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핵심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절강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안내되면서 현장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 내용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 △창업·투자 지원 △고용 및 인력양성 정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광양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입·확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함께 안내했다.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